

# 完形補文構造 考

南 基 心  
(啓 明 大 學)

## I. 緒 論

1. 나는 그가 시험에 합격했음을 알았다.
2.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마라.
3. 그가 돌아온 것도 몰랐느냐?

등의 문장에 나타나는 補文(complement)은 때로는 그 종결어미가, 때로는 그 종결어미와 이른바 時相의 접미사가 함께 제거되어, “-음”, “-기” 등의 補文子(complementizer)에 이끌려, 그 上位文(혹은, 外廓文, 主文)에 內包되었다는 점에서 不具補文이라고 한다면,

4. 나는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생각한다.(말했다……) 란 문장에 내포된 補文은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完形補文이라 할 만하다.

國語補文法에 대해서는 이미 훌륭한 업적이 나온 바 있어, 國語에 있어서 일반적인 補文의 범위와 그 윤곽이 들어난 바 있다<sup>1</sup>.

完形補文은 이른바 引用法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정리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앞서 나온 업적들이 國語補文法 一般을 一括해 다룬데 대해, 本稿는 完形補文構造에 焦點을 두어 考察코자 한다.

특히 完形補文子의 처리, 完形補文法과 이른바 引用法과의 관계, 補文動詞 및 名詞의 分類, 이른바 同位變形(appositive transformation)에 의한 명사구의 형성등에 관해 言及이 될 것이다.

## II. 完形補文과 補文動詞 및 名詞類

完形補文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들 문장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모두 等質인 것이 아니다.

1. 나는 그가 귀국했다고 들었다.
2. 자녀도 저 여자가 허영에 들떠 있다고 보는가?

<sup>1</sup> 국어의 補文法에 관한 연구로 Lee(1970), Yang(1972) 등이 있다.

3. 나는 神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4. 그는 칠판에 회의장소를 삼층으로 옮긴다고 썼다.
5. 나무 잎이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6. 순희가 칠수도 집에 있느냐고 물었다.
7. 순희가 “칠수도 집에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들 중 6,7은 이른바 引用文이다. 6은 間接 인용문이고, 7은 直接 인용문으로 서로 有關한 관계에 있어 그 相關性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다른 문장들은 直接이거나 間接이거나 남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6,7의 引用文과 對比해서 생각한다면 1~5의 문장들도 혼잣말이나 속생각을 引用한 것이라 보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이들 여러 문장의 上位文의 動詞(補文動詞라 부르기로 함)의 特性의 차이에 의해 위와 같은 意味上的 차이가 생긴다.

즉, 1의 補文動詞 “듣다”는 밖에서 주어진 말을 受容한 것이고, 2~7은 스스로의 말이나 속 생각 혹은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2~3은 內部的인 생각 혹은 판단을 나타낸 것인데 비해 4~7은 對外的인 表現이다. 一般的으로 對外的인 表現을 나타내는 補文動詞 (위의 “말하다”, “묻다”, “손짓하다” 등)는 “명사+에게”란 名詞句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8. 그는 나에게 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말했다.
9. 학생들이 선생에게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10. 나무 잎이 나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와 같다.

內部的인 표현을 보이는 “믿다”, “생각하다” 등은 그러한 名詞句를 갖지 않는다.

11. \*나는 김군에게 神이 있다고 믿는다.
12. \*그는 자기에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또 對外的表現 補文動詞는 補文子로서 “-고”뿐만 아니라 “-라고”를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3. 그는 나에게 “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14. 나무 잎이 우리에게 “어서 이리로 오시오” 라고 손짓한다.

와 같다. 한편 內部的表現 補文動詞는 “-라고”를 취하지 못한다. 예컨대,

15. \*나는 神이 존재한다 라고 믿는다.
16. \*저 여자는 허영에 들떠 있다 라고 본다.

와 같다.

뿐만 아니라 內部的表現의 경우에는 對外的表現의 경우와는 달리 감탄사를 내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즉

17. 그가 “아차! 중요한 일을 잊었구나” 라고 말했다.

가 가능한데

18. \*나는 “아이구, 저 여자가 허영으로 가득찼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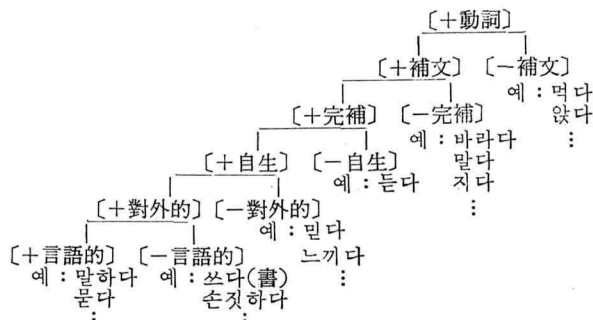
라고는 하지 않는다.

같은 對外的表現 補文動詞는 다시 그 표현이 음성언어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에 의해 구별된다. “말하다”, “묻다” 등은 음성언어를 수단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데 대해, “쓰다”, “손짓하다” 등은 글자라든가 손짓 혹은 몸짓 등의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지금까지 얘기해 온 바를 각 보문동사의 어휘자질로 표시할 수가 있다. 우선, 모든 보문동사는 보문을 갖지 않는 대다수의 동사, 예컨대 “자다, 읽다, 앓다, 서다…” 등과 구별을 짓기 위해 [±補文]의 資質을 設定하여 이들 보문동사는 [+補文]의 資質을, 그 외의 다른 동사들은 [-補文]을 갖는 것으로 본다. [+補文]을 갖는 동사들은 다시 不具補文을 갖는가 完形補文을 갖는가에 따라 [+完補] 혹은 [-完補]의 資質을 갖는 것으로 본다. 즉 “바라다”(그가 어서 오기를 **바라**다), “말다”(꼭 가고 **말**겠다), 알다(나도 그가 온 것을 **알**았다), “마땅하다”(그렇게 함이 **마땅**하다)…등은 [-完補]의 자질을 갖는 것들이요, “말하다, 묻다…” 등은 [+完補]를 갖는 것들이다.

[+完補]의 동사로서 “듣다”와 같은 동사는 남의 말을 受容하기만 하는 점에서 [-自生], 다른 것들은 [+自生]의 자질을 갖는다. [+自生]의 동사 중에서 對外的 표현을 나타내는 “말하다, 쓰다…” 등은 [+對外的] “보다, 믿다, 느끼다…” 등은 [-對外的]의 자질을 각각 갖는다. [+對外的] 동사들로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음성언어에 의한 표현을 보이는 동사는 [+言語的], “쓰다[書], 손짓하다…”와 같은 음성언어 밖의 수단에 의한 것들은 [-言語的]의 자질을 갖는다. 이와 같은 구분은 이미 얘기해온 바와 같이 모두 統辭的 특질에 의한 것이다.

이들 자질은 서로 上, 下位의 계층적 관계에 있다. 上, 下位 자질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이들 자질은 하위의 자질이 상위의 것에 내포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語彙部(lexicon)에 이들 補文動詞의 자질을 표시함에 있어서, 어느 하위 자질 하나가 표시되면 그 상위의 자질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믿다”는 [-對外的] 하나만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그 上位의 자질 [+自生], [+完補] 등은 일일이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한편 “설명하다” 같은 동사는 음성언어적인 수단으로나 문자에 의해서나 다 가능하므로 [+對外的]보다 下位の 자질 [+言語的]에 대해서는 中和의이다. 따라서 이는 표시하지 않는다. 즉 어느 자질보다 하위의 자질이 표시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해서는 中和의임을 뜻하게 된다.

이제까지 얘기해 온 바를 종합하여 補文動詞에 따른 그 어휘자질의 표시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바라다[-完補]	([+動][+補文])
들다[-自生]	([+動][+補文][+完補])
믿다[-對外的]	([+動][+補文][+完補][+自生])
설명하다[+對外的]	([+動][+補文][+完補][+自生])
쓰다[-言語的]	([+動][+補文][+完補][+自生][+對外的])
묻다[+言語的]	([+動][+補文][+完補][+自生][+對外的])

위에서 ( )안의 자질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어휘의 자질 분석은 完形補文을 이끄는 名詞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보인다.

19. 우리는 최근 거물 간첩이 잠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20. 복희가 결혼했다는 소문이 떠돈다.

21. 그가 어서 귀국하라는 독촉에 못이겨 끝내 귀국하고 말았다.

등의 문장에서 “정보, 소문, 독촉” 등의 명사가 “-는”에 의해서 統辭上 이들 명사의 修飾句 노릇을 하는 完形補文을 이끌고 있다. 이들 完形補文을 이끄는 것이 동사가 아니고 바로 이들 명사인 것은 그 主文의 동사인 “입수하다, 떠돌다, 못이기다” 등이 補文動詞가 아닌 점으로 보아 명백하다. 이들이 보문동사의 경우와 같이 [+完補]의 자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餘他的 대부분의 명사가 完形補文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음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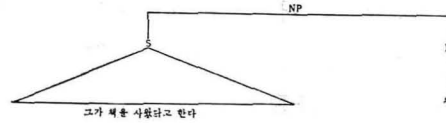
22. 그가 사온 책이 어디 갔느냐?

에서 명사 “책”은 關係冠形修飾化(relativization)에 의한 修飾句를 이끌 뿐 完形補文修飾句는 이끌지 못한다.

23. 그가 사왔다는 책이 어디 있느냐?

에서 “책”의 修飾句는 “그가 책을 사왔다고 한다(=말한다)”라는 문장이 關係冠形修飾化

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21의 “책”의 修飾句와 同質의인 것이다. 즉



와 같은 구조에서 導出된 것이다.

補文을 갖는 명사의 경우도 동사와 같이 [-完補]를 갖는 것도 있다.

24. 그는 나에게 돈을 빌려 준 일이 있다.

25. 순희가 곧 돌아갈 눈치다.

등의 “일, 눈치” 등은 不具補文修飾句를 갖는다.

24' \*그는 나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일이 있다.

25' \*순희가 곧 돌아가겠다는 눈치다.

는 非文法的이다. 24, 25의 修飾句는 관계관형수식화에 의해 도출된 것이 아니다. 즉

24'' 그는 (어떤) 일로 나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는 24번 문장과 뜻이 다르다.

25'' \*순희가 (어떤) 눈치로 곧 돌아가겠다.

는 非文法的이다. 이로 보아 “일, 눈치” 등의 명사는 [-完補]의 자질을 갖는 것이 확실하다. “모양, 줄, 가능성” 등의 명사가 이 부류에 속한다.

한편 다음과 같은 예도 있다.

26. 김 장군이 반란을 음모한 죄목으로 투옥되었다.

에서 명사 “죄목” 앞에 오는 修飾句 역시 관계관형수식화에 의해 도출된 것이 아니다. 예컨대

27. \*김 장군이 어떤 죄목으로 반란을 음모했다.

와 같은 문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백하다. 이 경우에는 “죄목”은 [-完補]의 자질을 갖는다. 그런데

28. 김 장군이 반란을 음모했다는 죄목으로 투옥되었다.

는 26과 뜻이 다르다. 28은 실제로 김 장군이 반란을 음모한 일이 없는데도,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러한 조작된 죄목으로 투옥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26도 이와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으나, 26과 뜻이 다른 한에 있어서 28은 完形補文修飾句를 갖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명사 “죄목”은 이 때에는 [+完補]의 자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계열의 명사로는 “혐의, 의심 전력(前歷)” 등이 있다.

[+完補]의 자질을 가진 명사로는 “사실, 증거, 흔적, 욕망”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完補]의 명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29. 犯人이 검문소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0. 犯人이 검문소를 통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의 두 문장에서 명사 “사실”은, 29에서는 完形補文을 이끌고 있는데 30에서는 不具補文을 이끄는 것 같다. 그러나 29와 30은 전혀 같은 뜻이다. 따라서 30의 冠形修飾句는 29의 完形補文修飾句의 變異形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명사 “사실” 앞에서는 完形補文修飾句를 30에 서와 같은 모양의 不具補文修飾句로 바꾸는 變形규칙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30의 冠形修飾句는 22나 23에서와 같은 關係冠形修飾句에 의한 것도 아니고 24에서와 같은 不具補文修飾句도 아닌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과 같은 부류의 補文名詞는 完形補文修飾句를 不具補文修飾句로 바꾸는 變形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건이 語彙部에서 이들 명사의 자질로 표시가 돼야 할 줄 안다.

기타의 자질에 관해서는 “풍문, 소문, 낭설” 같은 完形補文名詞는 [-自生], “믿음, 의심” 등은 [-對外的], “설명, 진술” 등은 [+對外的], “말” 같은 것은 [+言語的], “편지, 전문(電文)” 같은 것은 [-言語的]의 자질을 각각 갖는다.

다음과 같은 文章은 지금까지 얘기해 온 것들과는 성질이 다르다.

31. 그는 나에게 “왜 내가 가야 합니까” 하고 反問했다.

32. 김씨가 “철수가 옳소” 하고 말했다.

등의 문장은 앞서의 예문 7이나 13, 14와 같이 直接的으로 引用된 引用補文을 가진 문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31~32의 上位文의 動詞 “反問하다, 말하다” 등이 모두 [+完補]의 보문동사로, 더 자세히 말하면, [+對外的]의 동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고”를 또 하나의 補文子(complementizer)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 “하고”는 다음 예에서와 같이 引用된 것 같아 보이는 부분이 内部的 表理일 경우에도 나타남으로써 7, 13, 14등의 “-라고”를 갖는 문장들과는 다름을 보이고 있다.

33. 나는 “이젠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다.

33' \*나는 “이젠 살았구나”라고 생각했다.

34. 나는 “역시 A가 B보다 낫구나” 하고 느꼈다.

34' \*나는 “역시 A가 B보다 낫구나”라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전혀 補文動詞가 아닌 것들과 함께 쓰인다.

35. 나는 “이젠 살았구나” 하고 굴뚝으로 나왔다.

35' \*나는 “이젠 살았구나”라고 굴뚝으로 나왔다.

36. 그가 “참 오래간 만일세” 하고 손을 내밀었다.

36'. 그가 “참 오래간 만일세”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들 문장의 “하고”는 다음과 같이 “하면서”로 代置가 가능하다.

37. 나는 “이젠 살았구나” 하면서 굴뚝으로 나왔다.

38. 그가 “참 오래간 만일세”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이러한 예에서 우리는 “하고”의 “하”는 動詞의 語幹이고, “-고”는 이른바 連結語尾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다만 이 때의 “-고”는 同時的 行爲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가 연결되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고”가 繼起的인 行爲 뿐만 아니라, 同時的인 行爲를 보이는 일은 흔히 있다.<sup>2</sup>

39. 기러기가 울고 간다.

는

39'. 기러기가 (한바탕) 울고 나서 (날아)간다.

39''.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간다.

의 두 가지 뜻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적당한 한정어가 있을 때 어느 한쪽으로 해석이 굳어지는 일이 있다. 즉

○ 어느 소복한 여인이 앞산 묘앞에서 울고갔다.

○ 어느 여인이 시장거리로 울고 갔다.

中 앞의 문장은 39'와 같이 “울고 나서”의 뜻으로, 뒤의 것은 39''과 같이 “울면서”의 뜻으로 해석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결어미 “-고”가 同時的 行爲를 보이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이들 모두가 “同時的 行爲”로 해석될 경우, “-면서”로 代置가 가능하다.

40. 자동차가 먼지를 내고 달린다.

40'. 자동차가 먼지를 내면서 달린다.

41. 그가 눈물을 흘리고 애원한다.

41'.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한다.

42. 내가 가슴을 조이고 그가 풀려나기를 기다렸다.

42' 내가 가슴을 조이면서 그가 풀려나기를 기다렸다.

“-고”가 同時的 行爲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면서”로 代置가 되지 않은 일이 있다.

43. 그가 모자를 쓰고 밥을 먹는다.

는

44. 그가 모자를 쓰면서 밥을 먹는다.

와는 뜻이 다르다.

또 “-고”가 오로지 繼起的 行爲만을 보이는 한 가지 해석으로만 되는 것도 있다.

45. 그가 편지를 쓰고 밥을 먹었다.

는 “쓰고 나서”의 뜻으로만 해석된다.

어떤 경우에 “-고”가 同時的 行爲를 보이면서 “-면서”로 代置가 안되며, 어떤 조건 아

<sup>2</sup> 우리말본 pp.296~303 참고. 여기서 “-고”가 시간적 나열과 공간적 나열의 두가지 뜻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해서 오직 繼起的 行爲만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주로 “-고”가 연결되는 동사의 성질에 달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으나, “그가 꿰어 앉아 울고 일어섰다.”라는 문장을 39와 비교할때 “-고”가 연결된 동사가 다 같이 “울다”이지만 여기서 오직 繼起的 行爲만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sup>3</sup>.

좌우간 “-고”가 동시적 행위를 보이는 일이 있는 것은 확실한 점으로 미루어 本稿에서는 31~36의 “하고”를 어간+연결어미 “-고”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 31~36의 문장은 複文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이들 문장, 예컨대 32와 34, 즉

32 김씨가 “철수가 옳소”하고 말했다.

34 나는 “역시 A가 B보다 낫구나”하고 느꼈다.

에서 “하고”와 그 앞의 “ ” 안의 문장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46. 그가 나를 “박사장님!”하고 불렀다.

47. 그가 나를 박사장님이라고 불렀다.

를 비교해 보면 46은 抑揚까지도 그대로 흉내내어 전달하는 것인데 비해 47은 같은 直接引用이면서도 억양까지를 複寫하지는 않는다. 46은 마치

48. 복소리가 “둥둥”하고 울렸다.

49. 눈이 “사그락 사그락”하고 내린다.

의 표현과 같다.

또 예문 7, 13, 14와 같이 직접인용되는 문장이 補文子 “-라고”에 의해 이끌릴 때는 그 인용의 대상이 오직 外部的으로 表現된 문장이나 말조각(話片)일 때 뿐인데 “-하고”의 경우는 內部的 表現일 때도 가능함은 이미 보았거니와(예문 31, 32), 감탄표현도 갖는다. 즉

50. 총이 “번쩍 번쩍”하고 빛난다.

51. 눈물이 “주루룩”하고 흘렀다.

52. 그가 “아함”하고 하품을 했다.

의 경우와 같다. 48~52는 모두 擬聲이나 擬態의 표현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 動詞化되어 나타난 예들인데, “둥둥하다”, “번쩍번쩍하다”, “아-함 하다” 등 동사중의 擬聲語나 擬態語 자리에 말조각(話片)이나, 문장을 그 抑揚까지를 그대로 代入하면 “박사장님! 하다”, “철수가 옳소 하다”가 된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 30번 문장은

{ 김씨가 “철수가 옳소” 했다.  
{ 김씨가 말(을) 했다.

<sup>3</sup> 梁(1972) p.7에서 “-고”가 행위유지의 동사(act-preserving verbs)와 같이 쓰이면 “그림과 동시에”의 뜻으로 쓰이게 된다고 하고, 행위 유지의 동사는 “듣다, 쓰다, 잡다, 덮다, 안다” 등이라고 하였다.



의 복합으로 분석한다.

이 “○○+하다” 구조에서 ○○자리에 의성어 대신 “아!, 참!, 아이구!” 등의 감탄사나 부르는 말, “그 사람이…”와 같이 中斷된 말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 모두 올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을 模擬補文이라 부르기로 한다(만일 擬聲語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이들 말 조각이나 문장도 擬聲語라 할만하다. 그 抑揚까지가 그대로 複寫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直接引用補文(예문 7등)과 間接引用補文(예문 6등) 사이의 관계는 後述하겠거니와 間接引用補文은 그 補文子 “-고”가 省略되어 나타나는 수가 있다.

53. 그는 나에게 어제 상경했다 했다.

(=그는 나에게 어제 상경했다고 했다)

54. 나는 철수에게 A 다방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철수에게 A 다방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때로는 模擬補文과 區別이 잘 안되는 수가 있다. 겉모양으로는 53은 模擬補文과 같다. 그러나 실제 對話에서는 擬引補文은 抑揚까지를 再生하므로 보통 구별이 된다. 間接引用補文은 항상 補文이 “-다, -냐, -자, -라”의 네 終結語尾中的 하나를 택하여 나타나므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模擬補文과 구별된다. 또 間接引用補文은 相對尊待 中和 語尾를 取 하는데 模擬補文은 그것이 구별되어 나타나므로 서로 분간이 된다. 예컨대 54의 “기다리라”는 模擬의 경우 같으면 “기다려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間接引用補文의 補文子 “-고”가 省略된 것과 模擬補文과는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 Ⅲ. 補 文 子

完形補文子는 가능한 補文子 候補였던 “-하고”가 語幹+語尾인 것으로 판명되어 제외되었으므로 “-고”와 “-라고”의 두 가지가 된다.

이들 補文子가 不具補文의 補文子들, 예컨대 “-고/음”, “-기”, “-지, 등과 더불어 전혀 형식적인 문법적 요소나, 아니면 각각 자기 고유의 의미 내용(semantic content)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兩論이 있다<sup>4</sup>. 근래에는 각 보문자가 자기 고유한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설이 유력시되고 있고, 필자도 이에 동의하므로 더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後述할 完形補文修飾句 형성에 있어서 특히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 完形補文子의 의미내용을 분명히 밝혀 놓고자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들 完形補文子에 의한 補文은 그 補文에서 진술된 행위나 상태가

<sup>4</sup> Rosenbaum(1967 : 25), Lee(1970 : 130, 166), Yang(1972 : 13, 19, 60) 등 참조.

반드시 사실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sup>5</sup>. 즉 補文에서 진술된 바가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음을 보인다.

1. 나는 복희가 결혼했다고 들었다.
2. 그는 내가 그 사건의 주모자라고 믿고 있다.
3. 나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4. 그는 “제가 오백원에 그 책을 샀습니다” 라고 말했다.

등의 문장을 각각 다음과 같이 더 긴 문맥속에서 보면 그러한 사실이 명백해진다.

- 1' 나는 복희가 결혼했다고 들었으나 그것이 헛소문임을 알게 됐다.
- 2' 그는 내가 그 사건의 주모자라고 믿고 있으나 내가 그 사건에 관계하지 않았음은 법정 판결이 말해 주고 있다.
- 3' 나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으나, 그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됐다.
- 4' 그는 “제가 오백원에 그 책을 샀습니다”라고 했지만, 책주인은 사백원만 받았다고 했다.

또 다음과 같은 비교에서 完形補文子가 다른 不具補文子와, 그 補文에서 진술된 바의 사실 여부의 전제(presupposition)가 서로 차이를 보여준다.

5. 그는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그 자백은 고문에 못이겨서 한 거짓 자백이었다)
- 5'. 그는 자기가 돈을 훔쳤음을 자백했다.
- 5''. 그는 자기가 돈을 훔친것을 자백했다.

5에서는 돈을 훔친 것이 거짓일 수 있었음에 반해, 5', 5''에서는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5에서 설사 그가 돈을 훔쳤음을 주장하고 있더라도 그 전제가 사실이 아닐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完形補文에서 그 진술된 바가 주장일 수는 있어도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은

6. 그는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에서 역시 “돈을 훔친 것”이 거짓일 수 있음으로 해서 더욱 명백하다.

“—고”나 “—라고”가 사실의 여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完形補文이 補文名詞의 修飾句로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다.

§II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거니와 다음과 같은 문장,

7. 김 장군이 반란을 음모했다는 죄목(罪目)으로 투옥되었다.

는 7'의 축약형이다. 즉

- 7' 김 장군이 반란을 음모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투옥되었다.

<sup>5</sup> Kuno(1970)가 일본어에서 각종 명사절을 이끄는 조사들 사이에 사실의 전제 여부에 의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 Yang(1972: 13, 19, 20) 참조.

에서 補文子 “-고”와 아무 의미 내용을 갖지 않고 完形補文을 修飾句化하기 위한 形式要素 (grammatical constant) “하-”가 생략되어 7이 된 것인데, 7이나 7'나 다 김 장군이 반란을 음모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반대파의 조작일 수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8. 복희가 결혼했다는 소문(낭설, 풍문, 소식...)을 들었다(그러나 복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에서도 마찬가지다.

9. “그 책을 오백원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갔었다(그러나 그렇게는 살 수 없었다).

에서 “-라고”도 한 가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完形補文이 叙述形이외의 것일 때, 즉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이거나, 叙述形일지라도 時相이 未確認의 것(즉 “-겠-”)이면 당연한 결과로 이러한 前提의 문제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

10. 소대장이 한시까지 집합하라고 명령했다.

- 10'. 소대장이 한시까지 집합할 것을 명령했다.

를 비교할 때 사실의 진실 여부에 관한 전제에 차이가 없음은 알 수 있다.

補文名詞句의 경우, 그 補文名詞가 事實性을 띤 명사이면, 그 앞에 오는 完形補文에서 진술된 바는 사실인 것으로 된다. 예컨대,

11. 犯人이 검문소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12. 그가 김 선생을 싫어한다는 증거가 또 있다.

등의 補文은 “犯人이 검문소를 통과한 것”이나, “그가 김 선생을 싫어하는 것”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補文名詞인 “사실, 증거” 따위가 事實性 명사라는 조건 때문이다.

예상에서 完形補文子가 그 고유한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 따라서 이들 補文子는 변형과정에서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심층구조에서 句節構造 규칙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 IV. 完形補文 構造

이제까지 논해 온 바를 토대로 하여 完形補文構造 생성의 제반 규칙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음에 언급하는 규칙은 오직 完形補文構造를 설명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미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완형보문구조는 다음과 같은 기본규칙에 의해 생성된다.

- (1)  $NP \rightarrow S_{comp} N[+完補]$

(2)  $VP \rightarrow S_{comp} V[+完補]$

(3)  $S_{comp} \rightarrow \left\{ \begin{smallmatrix} S \\ "S" \end{smallmatrix} \right\} cmp$

(4)  $"S" \rightarrow \left\{ \begin{smallmatrix} S \\ *S \end{smallmatrix} \right\}$

(5)  $*S \rightarrow \text{話片, 非文法的文章, 外國語文章等...}$

여기서 S는 문법적인 정상적인 문장으로 종결어미까지를 포함한 완전한 문장을 이룬다.  $S_{comp}$ 는 完形補文을 이룬다.

cmp(complementizer)는 完形補文子를 이르는데 “-고”를 기본으로 잡고, “S”, 즉 직접인용일 때는 “-(이)라고”가 되는 것으로 한다. “-이라고/-라고”는 “S”가 명사이거나 말조각으로서 닿소리로 끝났는가 아닌가에 의해 구분된다. “S”는 직접인용을 가르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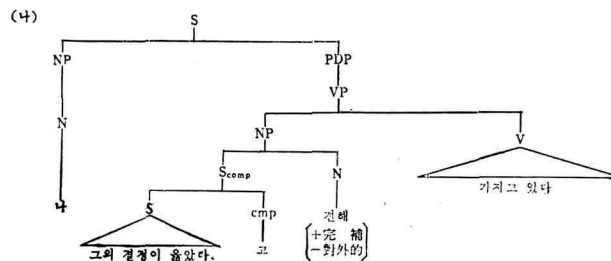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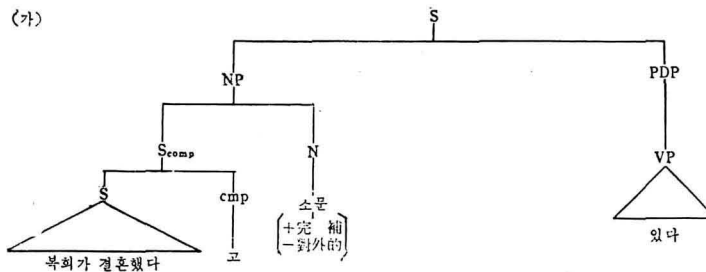
직접인용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문장 S뿐만 아니라, 잘못 한 말, 외국어, 話片 어느 것이나 外部로 표현된 말이면 다룰 수 있는데 이들을 \*S로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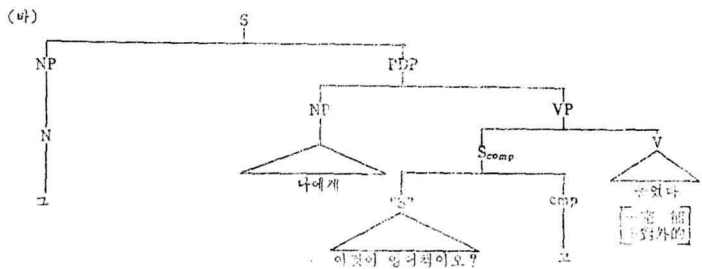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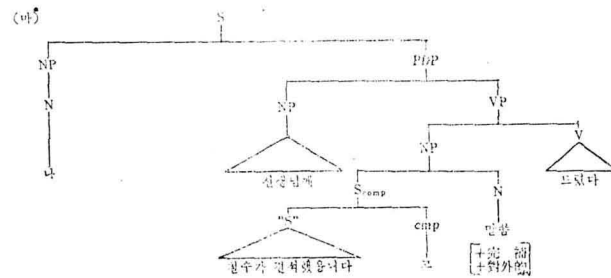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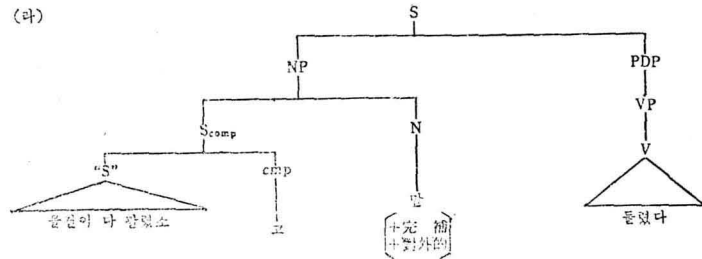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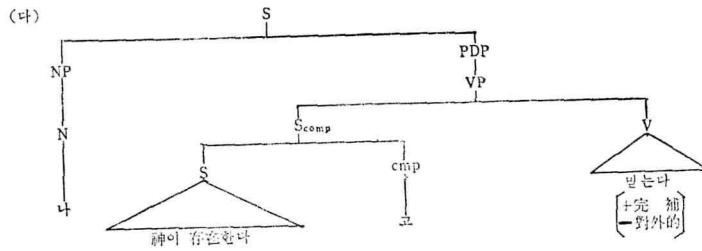
\*S의 예를 보이면,

1. 철수가 “아니 저 사람이...”라고 외쳤다.
2. 애기가 “큰거 책(=큰책)”이라고 했다.
3. 그 서양 친구가 “I will see you tomorrow”라고 말했다.

등과 같다.

앞에 보인 규칙에 의해서 대충 다음과 같이, 보문을 가진 문장의 구조가 생성된다.





(가)~(다)는 補文名詞나 補文動詞가 [-對外的]일 때이고, (라)~(바)는 [+對外的]일 때 이른바 인용보문을 보인다.

(가), (라)는 각각 主語가 補文名詞일 때, (나), (마)는 목적어가 補文名詞일 때, (다), (바)는 述語가 補文動詞일 때를 보인 것이다.

(라)~(바)는 "S"의 引用부호 " "가 消去되지 않은 대로이면, 補文子가 그 앞의 補文의 끝 소리가 닿소리나 홀소리냐에 따라 다음 규칙에 의해 "—이라고" 혹은 "—라고"로 나타난다.

(6) 코  $_{cmp} \rightarrow (이)라고/S-$

그리하여 (라)~(바)는 格標識의 토가 삽입되어 각각

(라)' ?\*[[“물건이 다 팔렸소”라고 말이]<sub>NP</sub>[[들렸다]<sub>PDP</sub>]<sub>S</sub>

(마)' [[나는]<sub>NP</sub>[[선생님께]<sub>NP</sub>[[“철수가 결석했습니다”라고]<sub>S<sub>comp</sub></sub>[[말씀을]<sub>N</sub>NP[[드렸다]<sub>V</sub>VP]<sub>PDP</sub>]<sub>S</sub>

(바)'[[그는]<sub>NP</sub>[[나에게]<sub>NP</sub>[[“이것이 영어책이요?”라고]<sub>S<sub>comp</sub></sub>[[물었다]<sub>V</sub>VP]<sub>PDP</sub>]<sub>S</sub>

가 된다. 되고 (가)~(다)는 격표지가 삽입되어 각각

(가)' \*[[[복희가 결혼했다고]<sub>S<sub>comp</sub></sub>[[소문이]<sub>N</sub>NP[[있다]<sub>PDP</sub>]<sub>S</sub>

(나)' \*[[나는]<sub>NP</sub>[[[그의 결정이 옳았다고]<sub>S<sub>comp</sub></sub>[[견해를]<sub>N</sub>NP [[가지고 있다]<sub>V</sub>VP]<sub>PDP</sub>]<sub>S</sub>

(다)' [[나는]<sub>NP</sub>[[[신이 존재한다고]<sub>S<sub>comp</sub></sub>[[믿는다]<sub>V</sub>VP]<sub>PDP</sub>]<sub>S</sub>

가 된다.

그런데 이들 중 (가)~(나)~(라)~(마)~(바)는 아직 완전한 표면구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마)~(바)는 그 句節構造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문장이지만 [철수가 결석했습니다라고 말씀]이 NP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완전한 표면구조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문명사 앞의 S<sub>comp</sub>를 冠形修飾化하는 변형이 필요하다.

완형보문의 관형수식화는 보문자 다음에 形式要素 “하는”을 첨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7) 완형보문의 관형수식화 규칙

$X-[S_{comp}-N]_{NP}-X$

1 2 3 4 →(필수적)

1 2+하는 3 4

이에 의해 (가)~(나)~(라)~(마)~(바)는 각각 다음과 같이 된다.

(가)'' 복희가 결혼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다.

(나)'' 나는 그의 결정이 옳았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라)'' “물건이 다 팔렸소”라고 하는 말이 들렸다.

(마)'' 나는 선생님께 “철수가 결석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이들은 그 보문자의 “고”와 상수요소 “하”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가)''', (라)'''는 각각 다음과 같이 된다.

(가)''' 복희가 결혼했다는 소문이 있다. (…했다(고 하)는…)

(라)''' “물건이 다 팔렸소”라는 말이 들렸다. (…렸소”라(고 하)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8)  $X-S-\left\{ \begin{array}{c} \text{고} \\ \text{라고} \end{array} \right\} -\text{하는}-N-X$

1 2 3 4 5 6 7 8 →(수의적)

1 2 3  $\phi$   $\phi$  6 7 8

완형보문을 관형수식화하는데 첨가되는 “하—”는 意味內容이 없는 형식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sup>6</sup>. 만약에 이 “하—”가 의미내용을 가진 말이라면, 보문동사 “말하다”의 준말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데는 다음과 같은 무리가 있다.

첫째로 이 “하—”는 다음 문장에서 의미내용을 가진 보문동사로는 해석이 안된다.

4. 나는 전세가 불리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나는 전세가 불리한 사실을 알았다)에서 “하—”가 “말하—”로 代置가 되면 뜻이 달라져서 “죽었다는 사실”=“죽은 사실”로 해석이 안된다. 4는 다음의 5와도 다르다.

5. 나는 전세가 불리하다고 한 사람을 안다.

5의 “한”은 “말한”의 뜻을 가진다. 5는 “(어떤) 사람이 전세가 불리하다고 했다”가 관계 관형수식화변형에 의해서 뒤의 명사 “사람”의 수식구가 된 것이다.(이때 수식구 안의 “사람”은 동일명사 삭제 규칙에 의해 탈락된다)

둘째로 만약 이 “하—”가 보문동사라면, 그리고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時相에 따른 여러 관형사형 곧 완료의 “—ㄴ/은”, 미정의 “—ㄴ/을”로도 나타나야 할텐데 항상 “—는”으로만 나타난다. 예컨대 4는

○ 나는 전세가 불리하다고 한 사실을 알았다.(≠4)  
(…불리하단…)

○ \*나는 전세가 불리하다고 할 사실을 알았다.  
(…불리하달…)

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하—”는 완형보문을 관형수식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의미내용을 갖지 않은 형식요소다.

앞에서 완형보문의 관형수식구화변형 규칙 (7)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는 이 변형이 꼭 수의적인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할지도 모른다.

6. 복희가 결혼했다는 소문이 떠돈다.

6'. 복희가 결혼했다고 소문이 떠돈다.

7. 나는 그 회의에 나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7'. 나는 그 회의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6과 7은 보문명사 “소문”과 “결정” 앞의 완형보문이 관형수식구화 변형을 거친 것이요, 6', 7'은 아직 그 변형을 거치지 않을 것인데도 완전히 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규칙 (7), 곧 완형보문의 관형수식화 변형은 필수적이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완형보문이 관형수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항상 문법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sup>6</sup> 李孟成(1968: 16~18) 참조.

8. \*북희가 결혼했다고 소문이 있다. (이 문장은 앞의 (가)의 문장임)

9. \*나는 그 회의에 안 나가겠다고 결정을 보류했다.

10. \*나는 犯人이 검문소를 통과했다고 사실에 놀랐다.

11. \*그는 열시까지 일을 끝내겠다고 계획을 취소했다.

등은 비문법적이다. 이들은 보문명사 앞의 보문이 반드시 관형수식구화의 변형을 거쳐서 각각 “북희가 결혼했다는 소문”, “그 회의에 안가겠다는 결정”, “범인이 검문소를 통과했다는 사실”, “열시까지 일을 끝내겠다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6', 7'이 가능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8, 9의 경우 그 上位文의 동사가 각각 “떠돌다”, “내리다”이면, 보문이 관형수식구화를 거치지 않고서도 문법적임은 6'와 7'에서 이미 보았거니와 10, 11의 경우도 上位文의 동사가 어떤 특정한 것으로 바뀌면 역시 관형수식구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문법적이다. 즉,

10' 나는 犯人이 검문소를 통과했다고 사실을 밝혔다.

11' 그는 열시까지 일을 끝내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같은 보문명사를 가진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를 따르는(즉 그 보문명사와 같은 귀절표지에 의해 지배되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 완형보문의 관형수식화의 필수적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다. 문제는 그러한 동사의 성질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겠거니와, 본론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가설을 제시함에 그친다.

첫째로 어떤 보문명사와 밀접한 共起(co-occurrence) 관계에 있는 동사가, 그 보문명사와 함께 나타날 때다. 여기서 共起관계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컫는다.

○ 여학생이 밥을 짓는다.

에서 동사로서 “만들다”, “요리하다” 등도 올법하지만, 올 수 없거나 부자연스럽다. 명사 “밥”과 동사 “짓다”는 서로 밀접한 共起 관계에 있어서, 한 쪽이 나타나면 다른 쪽이 거의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기는 힘드나 “밥”과 “먹다”, “버리다”, “썩히다” 등등 다른 동사들과의 관계와는 다르다. “장갑”과 “끼다”(cf. \*신다, \*입다), “옷”과 “입다”(“입다”는 주로 衣類名詞하고 공기한다), “머리”와 “감다”(cf. \*빨다, 씻다…), “술”과 “치다”(cf. \*물을 치다) 등이 공기관계에 있다 할만하다. 물론, 예컨대, “장갑”이 “사다, 버리다, 주다, 빨다” 등등의 무수히 많은 다른 동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끼다”와의 관계는 특별히 뭔가 다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앞의 6'의 “소문”과 “떠돌다”, 7'의 “결정”과 “내리다”, 11'의 “계획”과 “세우다” 등이 그러한 관계로서 그들 문장이 보문명사 앞의 완형보문이 관형수식구화하지 않은 채로서도 문법적인 이유가 설명될 듯하다. 따라서 8, 9, 10 등의 문장이 非文法的임은 “소문”과 “있다”, “결정”과 “보류하다”, “사실”과 “놀라다”가 共起的인 밀접한 관계가 아닌 데서 유래



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두째로 “말을 하다, 질문을 하다, 생각을 하다, 신호를 하다…” 등에서 보문명사 “말, 질문…” 등과 동사 “하다”와 사이의 관계다. 이들 명사는 목적격 조사 “을/를”을 취해 형식상 목적어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은 마치 한개의 동사와 같은 성질을 지닌다. 곧 이들은 각각 “말하다, 질문하다, 생각하다…”와 같이 單一한 동사들이나 한 가지인 셈이다. “하다”는 이들 동사성 보문명사를 문법적으로 동사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목적어+동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실은 하나의 보문동사와 같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들 보문명사 앞의 완형보문은 관형수식화를 거치지 않고서도 문법적일 수 있다. 예컨대,

○ 그가 곧 떠나겠다는 말을 했다.

cf. 그가 곧 떠나겠다고 말을 했다.

세째로, 보문명사와 같은 귀절표지의 지배를 받는 동사가 [+對外的] 보문동사일 때다. 예컨대,

○ 그는 犯人이 국외로 탈출했다는 사실을 말했다.

cf. 그는 犯人이 국외로 탈출했다고 사실을 말했다.

이제까지 말해 온 바 보문명사와 같은 귀절표지의 지배를 받는 동사를 일괄해서 규정짓기가 매우 힘들다. 우선 처음 두 종류의 동사를 임시로 先行補文名詞의 共起동사라 부르기로 한다.

보문명사와 그 앞에 오는 완형보문은 함께 귀절표지 NP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이 NP는 다시 뒤에 오는 동사와 함께 귀절표지 VP에 의해 지배되거나(7과 같이 NP가 목적어일 경우) S에 의해 지배된다.(6과 같이 NP가 주어일 경우).

이 VP나 S에 의해 지배되는 동사가 앞에 말한 先行補文명사의 공기동사거나 [+對外的]인 동사이면 NP의 지배하에 있는 완형보문은 관형수식화 변형이 적용되기에 앞서, NP의 지배로부터 VP로 올려붙이는 변형을 적용 받는다. 이렇게 해서 6', 7', 10', 11' 등의 문장이 생성된다.

이것을 규칙화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9) NP의 완형보문 상승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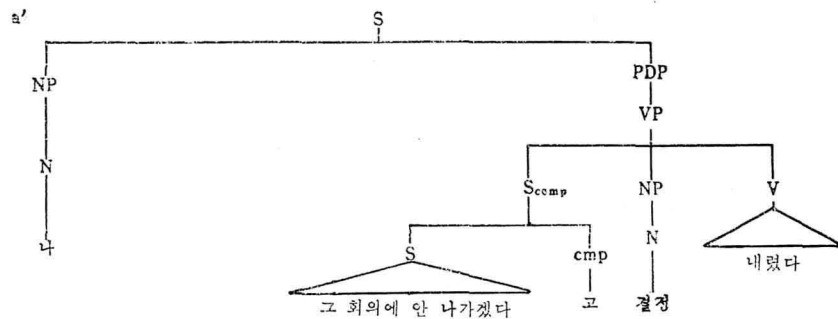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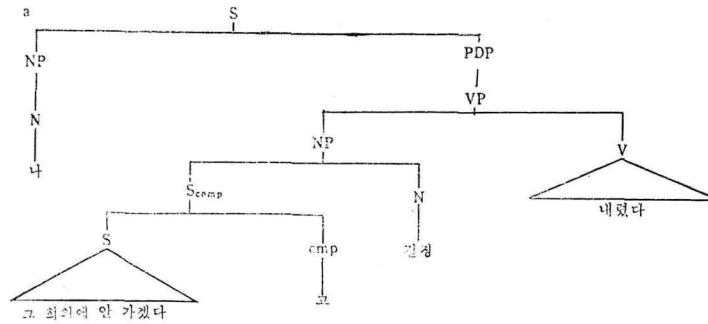
$[X - [S_{comp} - N]_{NP} - X - V - X]_{VP \text{ or } S}$

1 [2 3] 4 5 6 →(수의적)

1 2 [3] 4 5 6

단, 5가 3의 연관동사거나, [+對外的]일 때.

예를 들어 앞의 문장 7' (나는 그회의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는 이 규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a'가 a가 되어 생성된 것이다.



이 규칙 (9)는 반드시 규칙 (7)에 先行해야 한다.

本節 첫머리에 주어진 귀절구조 규칙 (3)은 “S”을 생성한다. 이 “S”는 후에 “ ”가 수의적으로 消去된다고 했거니와 이제 “ ”의 消去와 그에 따른 문제를 얘기하겠다. “ ”가 消去되지 않으면 그대로 직접인용문으로 남지만 그것이 消去되고 다시 몇가지의 변형을 거치면 이른바 간접인용문이 된다.

(10) “ ” 消去 규칙

“S”→S (수의적)

규칙 (10)은 (6)보다 앞서 적용되어야 한다. 규칙 (10)을 거치지 않으면 (6)을 거쳐 직접인용문이 되거니와 규칙 (10)을 거쳐 “ ”가 소거된 S는 간접인용문이 되기 위해서 “—日니다, —日니까, —오, —아라, —日시다” 등등 상대존대의 각 등분이 표시된 종결어미가 상대존대가 중화된 어미 “—다, —냐, —자, —라” 등으로 바뀌고, 또 인칭, 처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上位文과의 呼應에 의해 적절히 바뀌어야 한다.

本稿가 이미 제한된 紙面을 많이 초과했으므로 이들 문제는 詳論을 피하고 더러는 이미 나온 업적들에 미루고 또 더러는 後稿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다만, 지금까지 직접인용에서 간접인용으로 바뀌는 과정이 言語外的인 상황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적절히 다루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 왔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직접인용이 간접인용으로 바뀔 때 시간부사어가 바뀌는 것을 어떻게 규칙화할 수 있

는가를 一例로 보이기로 한다.

간접화 변형에 관계되는 한, 시간을 보이는 말들은 대체로 ‘지금’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와 미래를 지칭하는 말들과, “그때”를 중심으로 그 전후를 지칭하는 말들의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이 두 종류의 말들을 그 중심 기준점을  $\phi$ 로 잡고, 前을 +, 後를 -로 표시한다면 각각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A) ‘지금’ 중심

	前			기준시	後		
	+3	+2	+1	0	-1	-2	-3
日	그끄저께	그저께	이 제	오 늘	내 일	모 래	글 피
週		전전주	전 주	금 주	내 주		
⋮	⋮	⋮	⋮	⋮	⋮	⋮	⋮

(B) ‘그때’ 중심

	前			기준시	後		
	+3	+2	+1	0	-1	-2	-3
日	.....	그전전날	그전날	그 날	그다음날	그다음날	.....
週	.....	그전전주	그전주	그 週	그다음주	그다음주	.....
⋮	⋮	⋮	⋮	⋮	⋮	⋮	⋮

12. 그는 어제 “내일 오겠소”라고 했다.

는

12' 그는 어제 오늘 오겠다고 했다.

로 간접화되는데 12의 직접인용보문 안의 “내일”이 12'에서 “오늘”로 되는 것은, 그 上位文의 “어제”와의 비교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표 (A)에서 어제는 +1이고 내일은 -1이다. 이들 둘을 합하면 다음과 같이  $\phi$ 가 되고 그것은 “오늘”이 된다. 즉,

$$\begin{array}{r}
 +1 \text{ 어제} \\
 +) -1 \text{ 내일} \\
 \hline
 0 \text{ 오늘}
 \end{array}$$

이것은 간접화 과정에서 時稱語를 규칙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인 것이거니와, 다른 요소도 이와 같이 규칙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追記: 完形補文法 全般에 관한 연구를 近刊 예정인 啓明大學 韓國學研究所 논문집 “韓國學” 第一輯에 발표예정임. 자세한 것은 그곳으로 미룸.)

## 참 고 문 헌

- 南基心. 1972. 現代國語의 時制에 關한 問題. 국어국문학. 55-57 합병호.
- 梁續錫. 1972. 韓國語의 接續化. 語學研究. 第Ⅷ卷 第2號.
- 李孟成. 1968. 韓國語 體言形에 關한 變形分析의 研究. 語學研究. 第Ⅳ卷 第1號 別卷.
- 李鴻培. 1971. The Category of Mood in Korean Transformational Grammar. 語學研究. 第Ⅶ卷 第1號.
- 張奭鎭. 1972. Deixis 의 生成의 考察. 語學研究. 第Ⅷ卷 第2號.
- Kuno, Susumo. 1970. *Notes on Japanese Gramma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 Kiparsky, Paul and Carol Kiparsky. 1971. "Fact." In: Steinberg and Jakobovits.
- Lee, Hong-Bae. 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Seoul: Pan Korea Corporation.
- Rosenbaum, Peter. 1967.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 Cambridge, Mass.: MIT Press.
- Steinberg, Danny and Leon Jakobovits. 1971. *Seman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ng, In-Seok. 1972. *Korean Syntax*. Seoul: Paek Hap Sa.

## 討 論

박병수: 저는 우리 말에서 “하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의미내용(semantic content)이 없다고는 보지 않아요. 가령 “김 장군이 음모했다고 하는 죄목으로……”에서 “~고 하~”의 “하”도 의미내용이 있다고 보았고 “박 사장님! 하고 불렀다”와 “이제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다”에서의 “하”도 전부 같은 동사로 저는 분류했습니다. 아직 우리 말의 이름은 주지 못했는데 그러한 동사를 verb of naming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이라 한다”의 “하”와 같은 동사로 봤습니다. 한가지 문제를 제시하면 “소문이 났다”고 했을 때 “영자가 복남이와 결혼했다고 소문이 났다” 그리고 “~결혼했다고 하는 소문이 났다” 이건 되는데 “결혼했다고 소문이 있다”는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소문이 났다”를 “결혼했다고 하는 소문이 났다”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이유를 드셨는데, 이것은 인용에서 오는 “~고 소문이 났다” 하면 앞에서 한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용문에서 오는 유추(analogy)에서 “~고 소문이 났다”는 되는데 “결혼했다고 소문이 있다”가 안되는 이유는 그 유추(analogy)가 해당되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역시 “결혼했다고 하는 소문”이나 “결혼했다는 소문”이나 다 같이 “결혼했다고 하는~”에서 올 수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南基心: “하다”가 의미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음모했다고 하는~” 할 적에 “하”에 어떤 의미내용을 주어야 할런지요. “~고” 다음에 “하”가 들어가는 경우 의미내용이 있다고 보면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verb of naming 라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책이라고 한다”의 “하다”는 “말하다, 명령하다, 묻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라(자)고 말했다, 한다,”에서의 “하다”는 그런 것의 하나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앞에 오는 “~라고, ~고”등 보문자가 이미 뒤에 보문동사가 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치(substitution)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

시 이 경우에도 이 “하다”는 특별한 의미 내용은 없고 의미 내용은 앞의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소문이 났다”의 경우에 “다”는 “다고”에서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시고 이것은 인용문의 유추(analogy)에서 온다고 하셨는데 유추로 보더라도 그 유추가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된다 하는 조건을 규정해야 할텐데 그것이 힘듭니다. “소문이 있다”의 경우는 안되는데 그것은 유추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 어떤 조건에서는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없느냐를 추정해야 하는 것이 문제로 남습니다.